

 <p>교육부</p>	<h1>보도자료</h1> <p>2020. 7. 9.(목) 배포</p>	
--	--	---

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-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주요 논의 및 결정사항

- 2학기 코로나19 대비, 방역·학사일정·원격교육환경 협력 논의
- 2020 교원능력평가 실시 유예, 학교평가 내실화로 보완
-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시행령 개정 추진
- 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권역별 지역포럼 및 간담회 공동 개최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(회장 최교진)는 7월 9일(목)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'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-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(이하 '협의회') 간담회'를 개최했다.

-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 2학기 준비사항을 논의하고,
- 협의회가 제안한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하고,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를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.
- 유은혜 부총리는 폭넓은 현장 의견수렴을 토대로 미래교육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'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권역별 지역포럼 및 간담회' 공동 개최를 제안하였고, 시도교육감들도 적극 협력할 뜻을 밝힘으로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력을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.
- 부총리와 교육감이 함께하는 권역별 포럼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, 인구구조 변화,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하여 우리 교육과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립하고,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.
- 이번 간담회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취임(20.7.1)한 이후 첫 만남으로, 학생들의 안전과 중단없는

학습 보장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회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.

- 아울러,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현장의 혁신 노력을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동력으로 발전·승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.
-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의 다섯 가지 키워드로 지속성, 포용성, 자율성, 적극성, 안전을 제시했다.

<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방향(안) >

- ① (지속성) 어떠한 상황에서도 **배움과 성장의 지속성** 확보
- ② (포용성)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**보편적 교육** 보장
- ③ (자율성) **현장의 자율적인 혁신**을 지원·촉진하는 방향으로 교육체제 혁신
- ④ (적극성) 미래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**선제적으로 대응**
- ⑤ (안전) **학생의 안전과 건강**을 최우선으로 보장

- 교육감들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앞에서 우리 교육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**교원들의 우수한 역량과 혁신,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** 덕분이었다고 강조하였으며,
-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.
- 이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**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이고,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지원**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.
- 먼저,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하여 **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이**되,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업과 교육활동 등에 대해 **학부모와 학생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**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.
- **학교평가는 단위학교의 수업, 생활지도, 학교방역**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, **코로나19 상황**에서 학교의 대응과 노력에 대

한 교원·학생·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.

- 또한,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("20.5.28, 제71대 총회)을 수용하여,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시,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개정*을 추진할 계획이다.

* 재해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 처분을 한 경우, 원장이 실제 휴업 및 휴원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·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근거 신설

- 이와 함께 마스크 등 학교현장의 방역물품 보유현황을 조사하여 부족한 물량을 지원하기로 하였다.

- 원격-등교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업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'거리두기 단계별 기준'에 따른 초·중·고 학사운영 방안을 논의하고,

- 전 교실 무선망 구축(약 20만실), 교원용 노후 PC 교체(약 20만대), 취약계층 에듀테크 멘토링 지원(4만명 학생 지원), 온라인교과서 지원(400개교 시범운영)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.

